

전남농가 30대男 절반이 미혼

통계청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

전남지역의 농가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새 농가인구 감소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전남 인구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농가인구 가운데 30대 남자의 미혼율이 50%를 넘었으며, 경기규모를 기준으로 한 소농과 대농간의 차이가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의 농가인구는 47만8천명으로, 지난 2000년 60만6천명보다

3명당 1명 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5년새 21% 급감... 脫農 가속화

5년새 21.2%(12만9천명) 급감했다.

농촌 가구수도 지난 2000년 23만3천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9만9천가구로 줄어 14.6%(3만4천가구)의 감소율을 보였다. 신안군의 경우 전체 가구 가운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2.7%에서 지난해에는 59.2%로 급감하는 등 전남의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전남은 또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34.4%에 달하면서 고령화 속도면에서도 전국 평균인 29.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9.3%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남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분석이다.

전국의 경우도 65세 이상 1인 농가가 지난해 12

만4천가구에 달하면서 지난 2000년에 비해 무려 22.8% 늘어나는 등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전남은 또 전체 농가인구 중 30대 남자의 미혼율이 49.6%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51.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30대 2명 가운데 1명이 미혼이라는 점에서 농촌 총각 결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광주도 전체 농가 30대 인구 1천977명 가운데 무려 58.6%(1천158명)가 미혼자로 조사됐다.

농가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0.5ha 미만 소규모 경작농가의 비중은 36%, 3ha 이상 대규모 경작농가의 비중은 7.4%로 이들 소농과 대농 가구수는 5년 전보다 각각 3.9%, 10.3%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농림어가 수는 145만4천가구로 지난 2000년보다 5.3% 감소했다. 또 농림어가 인구도 393만1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1.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와 인구 중 농림어가 및 농림어가 인구의 비중도 각각 9.2%, 8.3%로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 조선업계 수주량 첫 2천만CGT 돌파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사상 첫 2천만CGT 수주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조선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실적은 총 1천558만CGT(380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6만7천CGT(280척)보다 무려 61.2%나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이 지난해 전체 수주량인 1천196만5천CGT(349척)를 이미 능가했고 앞으로의 상황이 좋을 것으로 보여 사상 첫 2천만CGT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주실적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501만 5천 CGT(135척), 2분기에 459만 5천CGT(93척), 3분기에 597만2천CGT(152척)로 분기별로 기록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선종별로는 올해 3분기까지 탱커가 633만2천CGT(200척)로 전체 수주량의 40.6%를 차지했고 컨테이너선(501만9천CGT,32.2%), LNG선(285만8천CGT, 18.3%)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LNG선 수출 프로젝트가 연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LNG선 발주가 축소됐고 이에 따라 LNG선 수주를 위해 도크를 비워둔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LNG선 대신 초대형유조선(VLCC), 컨테이너선, LPG선을 수주하면서 수주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톤수로 비교적 단순했던 선종과 선형이 복잡해지면서 그동안 건조량을 표시하던 GT로는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해지자 이러한 용도의 새로운 척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 고안되어 1967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 신고 현행 30일→60일로 연장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한 달 연장된다.

또 아파트 등의 분양권.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거래세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이어서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은 60일로 2배 늘어난다. 이는 계약 이후 계약사상 변

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중개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9월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등)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법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이번 국회에 상정, 처리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 입주권의 취득·등록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내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관리지역)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연합뉴스



주부 '단감따기' 체험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 40여명이 1일 농협광주지역본부 초청으로 광주 시 광산구 등림마을을 찾아, 단감수확을 하는 등 농촌 산지체험을 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제공)

옥션 등 오픈마켓 판매 의류 64%

“소재·기능성 실제 상품과 달라”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끼리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옥션, G마켓, 다음온켓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의류 중 64%가 소재와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가 실제 상품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소재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는 의류·섬유제품 28종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64%에 달하는 16종이 소재와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가 실제 상품과 달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중 실블루라수라고 광고·표시된 블루수 5종의 경우 실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4종은 100% 폴리에스테르, 1종은 100% 면으로 나타났다. 또 모소재라고 광고한 의류제품 5종 중 3종은 모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고 폴리에스테르나 레이온 아크릴 등 합성섬유가 사용됐다고 소비원은 덧붙였다. 목화섬이나 순면 커버를 사용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합성섬유가 들어있는 제품도 6종이나 됐다.

/연합뉴스

공공개발 강제이주땐 세입자 보상 대폭확대

건교부 용역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신도시 등 공공사업으로 강제이주해야 할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임차영업자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늘어난다.

또 과도한 토지보상비의 지급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내 조성 토지를 일반분양가로 산정해 보상하는 대토방식이 도입되고 보상금의 일부를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의 분양가격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일 공청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확

정한 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토지보상법)에 반영,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데로 시행할 방침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 비해 보상이 미흡한 세입자를 위해 현행보다 주거이전비(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33% 늘려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할때 주거이전비가 현행 942만원에서 1천256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이농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농비의 지급기준은 8월분에서 1년분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노사 합의 위로·전별금 퇴직소득공제 포함돼야”

근로소득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받은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일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워크아웃·추심금지·이자율 조정 가능

‘개인회생’ 성실히 수행하면 빚 면책 및 갚을 능력 없다면 파산제 활용을

자녀가 아파서, 집을 사기 위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등등 개인이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인생의 변수를 만나게 되며 마라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빚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만은 대부분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한두번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커져 원금과 이자를 합쳐 다시 원금을 만드는 대환대출로 이어지고, 이마저 모자라 연체 대납업자와 사채까지 끌어들여게 된다.

빚의 악순환은 결국 한 경제주체를 자본주의 경쟁에서 탈락시켜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과다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과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들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8년 이내 상환할 수 있는 사적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이 금지된다.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연체 이자율도 10% 내외로 조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 탕감이 사실상 어렵고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을 받게 되므로 변제율이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매일 일정 소득이 있고 일반 금융권에 부채가 있으며 절대액이 낮은 경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발

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이전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일정기간(3년~8년)동안 채무를 변제해야하며 이를 완료할 경우 나머지 부채에 대해 면책이 된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이 불분명하고 부채가 과다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한다.

개인파산은 법원에 빚을 많지만 재산이 없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면책이 될 경우 복권이 돼 파산시 발생하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배제된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⑬ 채무자 공적지원제 활용하기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아이인텔리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06	062-601-7203
로얄TOTO	광주영업소 영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7	032-510-8425
휴로넷	[주5일/정규]SK텔레콤 114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08	02-780-9595
빅스오 유틸리티 센터	CS/인포데스크/안내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08	062-606-8000
재단법인 서암직업전문학교	실내건축 설계 훈련교사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0	062-525-9933
동인철강	토목,건축관련 기술자 채용	초대졸/경력3년	2200~2400	11/10	061-323-2560
이클루시비리티	jsp,java(웹),vb프로그래머 모집	초대졸/경력3년	2600~2800	11/10	02-3404-8615
빅플러스투어	여행 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10	062-654-0033
스케일트론	응용 프로그램 개발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10	062-655-4000
기영미디어스	유기화학 연구개발 연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2400~2600	11/10	062-226-9445
시에이에스	[문리인교육1위] 정규직 사원모집(일반가능)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0	062-522-1089
동원건설	총무/경리/회계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1/15	062-606-5553
호텔 프라도	프라도 호텔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5	062-654-9999
서석영브라이스톤	반도체영업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2-3218-162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